

불황 극복에 적극 동참을



김 선 응 채란분과위원장

새로운 한 해가 시작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설렘으로 자기 나름대로 소망과 희망을 간직하고 바쁜 발걸음을 옮기는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시작이란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시작이 좋아야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 한해를 희망과 함께 양계인 모든 회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우리 채란 업계에 불어 닥친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은 쉽게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AI로 인한 소비 감소는 우리에게 더욱 더 큰 시련과 아픔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량 보다 많은 양계 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1차적인 책임이겠으나 보다 구체적으

로 그간의 경기 흐름을 분석해 본다면 구조적인 모순과 어려움 탈출을 위한 채란인들의 욕심이 합치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생산량을 감소하지 않고서 가격의 회복은 당장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 되면 될수록 채란인들의 희생이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채란인들이 힘을 모아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아간다면 머지않아 우리 채란업은 정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업계가 불황을 극복하는데 서로 동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과잉생산 예방으로 불황 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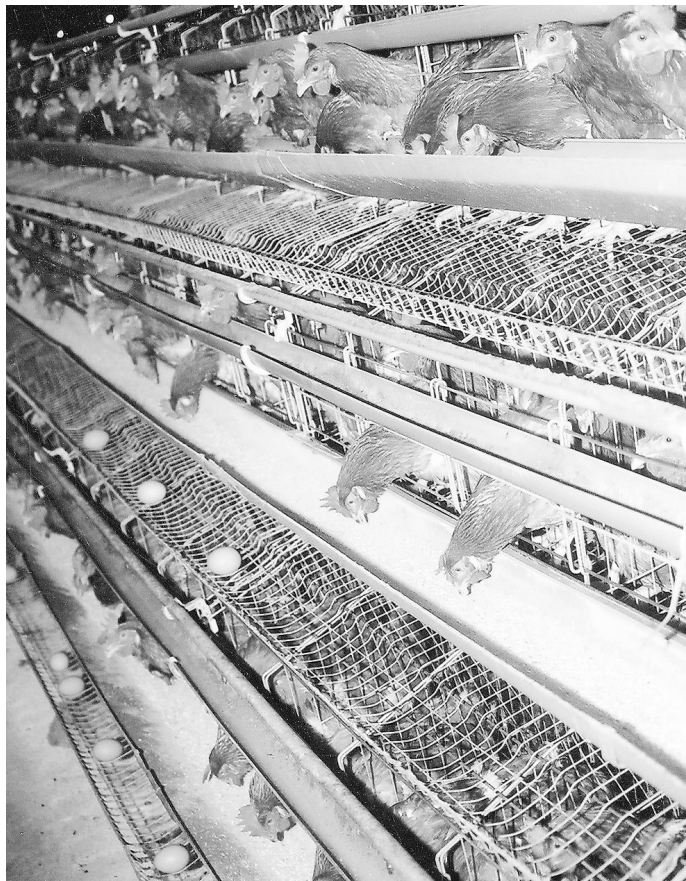
정부 공식 자료에 의하면 현재 산란계 수수는 약 5천6백만 수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계란이 과잉생산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정 수수의 종계 및 실용계 관리를 통한 채란업계가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수수관리를 통하여 양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에 채란인들도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산란 실용계 100주령 운동 적극 동참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WTO, FTA 등 시작개방 압력으로 인하여 우리 양계업계는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채란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여 외부영향으로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양계산업 자체가 위기의식이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란 종계 도태주령은 78주령에서 80주령 도태를 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발맞추어 채란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채란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산란실용계 100주령제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경제 주령이상의 사육기간으로 초래되는 계란의 과잉생산, 저품질 계란생산으로 인해 난가 하락 및 큰 폭의 DC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극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자조금 사업을 통한 소비홍보 절실

정기적으로 추진해온 의무자조금은 오리무중의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채란인들 모두가



채란분과 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의 자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며 전 양계인들의 무임승차 없이 적극동참하여 주신다면 이 어려운 불황을 타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에는 의무자조금이 되던 임의자조금이 되던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어 소비홍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채란인 여러분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양계발전에 더욱 정진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양계**